

배어난 문장력 비탕한 과학에서이

아이작 아시모프의 「우주의 비밀」

아이작 아시모프는 아마도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과학 저술자가 아닌가 생각한다. 그의 글은 언제 읽어도 명쾌하며, 특유의 필체로 재미있고 과학지식을 설명하기 때문에 상식을 갖춘 독자라면 그가 설명하고자 하는 바를 이해 못하고 넘어가기가 어렵다.

「우주의 비밀」(동아출판사)은 아시모프가 쓴 17편의 과학 에세이들을 주제별로 모아 한 권의 책으로 엮은 것이다. 크게 '태양계', '우주의 구조', '이 곳, 우리가 사는 지구'의 3부가 모두 17개의 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태양계'는 다시 8개의 장으로 나누어서 태양계 전반에 관한 사실과 기초적인 천문학 지식을 아시모프 자신이 일상생활에서 겪은 에피소드와 그리스신화, 성경구절 등을 인용해가면서 설명하고 있다. 흔히 태양계 하면, 태양과 9개의 행성을 연상하고, 이들 각각의 대상을 각론적으로 설명한 것이거나 생각하기가 쉬운데, 이 책의 서술 방법은 그러한 일반 독자들의 의표를 찌르고 있다. 우선 태양계의 참모습이 밝혀지는 과정을 역사적으로 서술한 다음, 어떤 하나의 과학지식을 설명하면서 여러 행성들의 비밀을 밝혀내는 과정을 밝히고, 그때그때마다 비교행성학적으로 태양계를 서술해나간 것이다. 특히 비교행성학적인 서술방법은 근래에 천문학에서 강조되는 부분이지만, 국내에서는 아직 교과서에서도 잘 서술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진가가 돋보인다.

'우주의 구조'에서는 오늘날 우주의 구조를 밝히는 데 가장 유용한 도구로 사용되는 '도플러 효과'와 '적색이동'을 설명하는 데 상당한 지면을 할애한 다음, 이것을 이용하여 우주가 팽창한다는 사실이 밝혀지는 과정을 다시 역사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그 다음엔 빅뱅과 퀘이사, 중력 렌즈, 잃어버린 질량 등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주에 대한 거시적인 모습을 전달하려고 하였다.

'이 곳, 우리가 사는 지구'에서는 화학, 생물, 사회문제 등 상이한 주제의 글들을 5편 실었다. 특히 주목되는 부분은 1989년 저온 핵융합반응이 성공했다고 전세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의 진상을 소개하면서 과학자가 갖추어야 할 태도를 강조한 것이다. 그리고 맨 마지막 장에서는 알골과 흡연, 마약문제 등 사회문제를 언급하면서 그 해결책을 호소하고 있다.

아시모프가 단편적으로 쓴 과학 에세이는 더러 보았지만, 그렇게 큰 감명은 받지 못했다. 그런데 이 책을 봄으로써 비로소 아시모프의 위대함을 보게 되었다. 무엇보다도 내가 어렵게 습득한 전문적인 과학지식을 너무나도

쉽게 풀어 쓴 그 재주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전문과학자로서는 도저히 흉내낼 수 없는 풍부한 문장력, 과학뿐만 아니라 고전과 인문을 망라한 폭넓은 지식이 오늘날 아시모프의 명성을 떨치게 했다고 생각된다.

양서정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81-40

조정권의 「산정묘지」

값싼 연대의 시대에, 암시의 어둠이 견혀버린 시대에, 외연과 내포의 거리가 가까워져버린 시대에, 단지 이웃하는 이미지와의 손쉬운 바뀌치기에만 능한 이 환유의 시대에, 이 수평의 시대에, '수직의 시학'은 과연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 그것은 단순한 직립이어서는 안된다. 온전한 의미에서의 '수직적 상상력'은 상승과 하강이 역동적 관계에 있을 때만 가능하다.

조정권의 시집 「산정묘지」는 그 표제가 함축하고 있는 바와 같이 바로 산정(상승 이미지)과 묘지(하강 이미지)의 팽팽한 긴장관계에서 그것의 시적 은유를 확보하고 있다.

예컨대 그는, "겨울 산을 오르면서 나는 본다 / 가장 높은 것들은 추운 곳에서 / 얼음처럼 빛나고 / / 가장 높은 정신은 / 추운 곳에서 살아 움직이며"에서처럼 정신의 높이를 지향하고자 하는, 즉 상승하고자 하는 욕망을 보여주기도 하고, "오랜 세월 내 幼년에 / 굳건히 밀등을 내린 月桂樹 나무여 / / 지상의 가장 낮고 어두운 곳을 향해 출발한 네 뿌리의 道程은 끝나지 않고"에서 우리가 볼 수 있듯, 하강하고자 하는 욕망을 보여주기도 한다. 그러나 그 하강하고자 하는 욕망은 다시 "저 멀리 도회지를 휩싸는 불빛으로부터 나는 버림받"으면서 절망으로 변주되며, 그 절망은 "우리는 / 땅에서 태어나 땅에서 좌초한 인간들"이라는 자맥을 시인으로부터 받아내기도 하지만, 결국 그 절망은 다시, "입중하시어 하늘의 언창살에 갇"히고, "나는 절망이 잠수실 私食을 하늘로 올려 보"내지만, 그 私食은 "저절당한"다. 그러나 오해해서는 안된다. 절망이 다시 하늘로 상승했다고는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갇힌 것이며, 따라서 그것은 산정의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다. 아직까지 그것은 묘지의 자리에 있는 것이다.

문제는 다시 '산정묘지'이다. 시인은 이, 서로 배반하고 충돌하는 상승과 하강의 이미지를

어떻게 한 은유의 틀 속에 형상화하고 있는가?

"山頂이며, / 말해보라, 내가 도착해서 다시 출발해야 하는 지점들 / 폭포를 거슬러 타고 오르며 / 상류의 출생지를 찾아가 필사적으로 알을 낳고 죽는 / 연어처럼"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듯, 시인은 '도착점'이라는 상승 이미지의 한 극점에 '죽음'이라는 하강 이미지, 즉 산정과 묘지를 동시적으로 올려놓음으로써 역동적 은유를 획득한다. 거기에서 시인은 다시, "그렇다. 모든 도착점은 최초의 출발점"이라고 진술함으로써 동양적 禪의 세계로 들어간다.

평자들로부터 '정신주의' 또는 '견인주의'로도 명명되는 조정권의 禪의 시세계는, 그의 수직적 상상력이 단순한 직립이나 높이가 아니듯이, 정태적일 수 없다. 조정권의 그것은, 저 묘지 속의 죽음을 산정까지, 그의 상상력으로 펴뜨릴해 끌어올린 이후의 어떤 것이다. 그야말로 그의 정신주의는 그가 "독학을 해"온 결과물이다. 독학은 이론이나 어떤 유파의 세계를 전제하지 않는다. 그것은 우선 체험의 자가 발전에 의지할 수밖에 없지 않은가? 독학을 한다는 것은 얼마나 역동적인가?

권정관

서울시 도봉구 수유2동 530-94 우광주택 가동 B-01호

헨리 밀러 「북회귀선」

북위 23°27'의 위선. 하지때면 해가 바로 이 선 위로 온다. 뉴욕, '허무의 공동 위에 세워진 흰 감옥'. 파리, '가난한 사람들마저도 마치 그 향에라도 있는 듯한 착각을 주는' 도시.

북회귀선은 우울한 도시 파리에서의 미국인의 즐거운 고백이다. 이 고백은 '미루어 헤아리지 못하는 어떤 이유 때문에' 파리로 쫓겨온 자의 유랑과 그 즐거움이다. 애초부터 예술가란 족속들은 보헤미안들이었으므로 그들에게 규범이나 습속은 영혼의 족쇄에 다름 아니다. 그렇지만 생활은 고통이다. 밀천도 없고 희망도 그야말로 인정받지 못하는 파리에서의 나날. 반년전에 스스로를 '예술가'라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존재할 뿐'이다. 그것은 고통스럽고 불안하고 우울하게 세느강을 흘러 내려간다. 고통을 이기는 길은 세느강에 족쇄를 던져 버리는 일이다. 그래서 생활의 고통을 이기는 즐거운 고백이 시작된다. 논란을 빚었지만 불안하고 우울한 내부욕망이란 얼마나 깊이 성

도착과 관련지어질까.

끊임없이 이어지는 性的 여러 형태와 성행위 및 성기 등의 직접적 묘사는 즐거움 속에서 자기착란과 뒤엎힘으로 뒤범벅이 될 지경이다. 이 책이 '외설문학' 또는 '금세기 기념비적 명작' 사이의 비난과 찬사를 받는 것도 바로 이러한 묘사와 정신적 방황에 대한 해석 때문이다.

그러나 헨리 밀러의 「북회귀선」이 책으로서 소중한 것은 외설을 뛰어넘는 문명에 대한 비판과 존재와 삶에 대한 깊이있는 통찰력과 철학적 관조를 유지한 덕분이다. 또한 북회귀선 위에 태양이 비출 때 끊기지 않는 금의환향의 꿈이 더욱 빛나고, 내부욕망에 대한 자유로움으로 밀도끝도없이 빛나는 즐거운 환상을 읽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도대체 소설이 아니다'라는 이 특이한 소설은 생활을, 우울한 파리의 상층을 망연히 혹은 냉혹하게 파헤침으로써 언제나 도시에서의 즐거운 환상을 상기시켜주는 멋진 책이다.

성기애

전북 이리시 744-17번지

「누구의 죄인가」

사상가이자 혁명가였으며 또한 훌륭한 작가라고 인정받은 게르젠이 1847년에 창작한 이 작품에는 러시아의 혼란하고 암울한 시대상을 배경으로 한 세 남녀의 사랑이 그려져 있다. 즉, 농노인 어머니와 지주인 아버지 사이에서 출생한 여주인공 류분까. 약사인 아버지와 독일인 약제사의 딸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나 독지가의 도움으로 모스크바에서 교육받은 꼬루찌페르스끼. 농부의 딸인 어머니와 지주인 아버지 사이에서 출생하여 막대한 재산을 물려받은 벨도프. 이 세 사람이 엮어내는 사랑, 결혼 그리고 새로운 사랑 그리고 파국. 이것이 이 작품의 기본 골격이라고 할 수 있다.

위선적이고 역악적인 가정환경 속에서 질식 되어가던 류분까에게 남동생의 가정교사로 자기 집에 들어오게 된 꼬루찌페르스끼는 하나의 구원파도 같았다. 유약한 성격의 꼬루찌페르스끼 역시도 국외자로서 느껴야만 하는 비참한 소외감을 함께 할 수 있는 대상으로서 류분까가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이들의 이런 공감과 애정 거기에다 거추장스럽게 느껴지는 딸을 결혼시켜버리려는 류분까의 아버지와 의붓 엄

마의 방관 속에서 이들은 결혼을 하게 된다. 결혼이라는 제도에 대해 적대감을 가지고 있던 의사 꼬루뽀프까지도 이상적인 결혼생활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이들의 생활은 평화롭고 즐거운 것이었다. 벨또프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벨또프는 다방면의 지식과 강한 열정. 높은 이상을 가졌으나 현실적으로는 구체적인 힘을 가지지 못한 인물이다. 자신의 이상과는 동떨어진 사회속에서 순간적인 즐거움에 빠져들면서 별스러운 인물이라는 호칭으로 불리던 이 벨또프에게 강한 영혼의 소유자인 류본가는 무서운 흡입력을 가지고 다가섰다. 류본가 역시도 남편인 꼬루뽀페르스끼의 맹목적이고 헌신적인 사랑을 느끼면서도 어쩔 수 없이 벨또프에게 빠져들고 만다. 이들의 애정은 곧 남편 꼬루뽀페르스끼에게 알려져 그를 알콜중독자로 만들게 되고 그들 자신은 병으로 혹은 유랑으로 그 열정적인 사랑에 대한 댓가를 치르게 된다.

줄거리 전개만을 본다면 삼각관계라는 해묵은 도식을 바탕으로 한 단순한 연애 소설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이 작품이 주목받는 이유는 게르펜이 이 세 남녀의 사랑과 그 파국을 지극히 사회적인 관점에서 해부하고자 주력했다는 점에 있다. 즉, "농노제가 만들어 내는 피치 못할 잔인성, 기본적인 자유의 완전한 결핍, 개혁에 대한 희망의 부재- 이러한 것들이 이 작품에 등장하는 부정적인 인간형을 만들어내고 결국 비극적인 결과를 낳았다고 본 것이다."

1840년대에 나온 이 작품이 이처럼 삶의 왜곡된 원인을 찾아보려는 작업에 치중했다면 1860년대에 니콜라이 체르니셰프스끼에 의해 창작된 「무엇을 할 것인가」는 이런 원인이 명을 바탕으로, 이후에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가 하는 점을 살피려고 했다. 역시 '열린책들'에서 출판된 「무엇을 할 것인가」는 「누구의 죄인가」에서와 마찬가지로 세 남녀의 사랑 파국 그리고 진정한 사랑을 다루고 있다. 두 작품의 차이라면 게르펜의 작품이 비극적인 결말로써 사회의 부조리, 모순을 폭로하고 있음에 비해 체르니셰프스끼의 작품은 이런 모순된 현실을 뛰어넘기 위한 건강한 노력을 해피엔딩으로서 제시한다는 점이다.

작가들의 실생활에 있어서도, 게르펜은 아내와 자신의 친구였던 독일시인의 염문으로 인해 고통을 받았음에 비해 니콜라이 체르니셰프스끼는 이상적인 결혼상을 제시했을 만큼 부인과 행복한 삶을 누렸다는 점에서 작품 내용과도 묘한 관련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 두 작품을 함께 읽어 보는 것은 분명 각별한 재미를 줄

것이라 믿는다.

박혜준

용산구 한남2동 713-2, 10동 2반 주택 2호

밀란 쿤데라 「농담」

과거, 어느 한 이데올로기가 지배적인 시대에서는 그것에 대한 도전이 개인적 파멸로 이어지는 것은 종종 있어왔던 일이다.

「농담」(권재일 옮김, 지학사)은 어디에나 존재하는 집단주의적 광기를 드러내어 준다. 이 소설의 주인공 루드빅의 삶은 스탈린주의가 한창이던 시대에 터부시하던 이데올로기 문제에 관한 무심한 농담 한마디에 의해 돌이킬 수 없는 굴곡을 겪는다. 그는 그가 겪었던 많은 고초와 괴로움 때문에 그를 탄핵했던 동료와 사회에 복수하려고 시도하지만 그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에게 스탈린시대는 이미 망각의 세월에 묻혀버리고 말았음을 확인한다.

쿤데라는 이 「농담」에서 역사는, 합리적인 운동법칙에 의해 움직이는 것이 아니며 정치적 천국(공산주의)을 추구하였으나 결국 정치적 지옥에 떨어져버린 사람들에게는 '기괴한 농담'에 불과하다고 지적한다.

그런 의미에서 「농담」은 다층적 구조를 가진 쓰러린 「농담집」이다. 루드빅과 레저에의 개인적 신화, 체코 민속음악에 대한 집단적인 신화, 스탈린 주의라는 한 시대의 신화가 우스꽝스러운 역사의 한 장면으로 부스러지는 모습은 '영원한 기억' '실수에 대한 교정'이라는 집착에도 불구하고 집요한 시도끝에 결정적으로 패배하고 나서 깨닫는 것은 무엇인가? 그의 인생전체는 훨씬 더 광대하고, 절대 되돌이킬 수도 없는 그러한 농담에 함몰되어 있기 때문에 자신의 농담을 철회한다는 것은 무력하고 부질없다는 점, 실수나 년센스로 출발한 일들이 법칙과 필연으로 출발한 일들과 똑같이 진실하고 실제적이라는 사실이다.

사적인 생활은 공적인 생활과 일치하게 될 것이며 수십가지의 공동체 의식들과 합류할 것이라는 공산주의적 유도파와는 다른 무엇으로의 전략 때문에 농담이 되어버렸다. 이 책은 인간의 역사를 생각했을 때 모든 혁명은 권위주의체제로 이행하게 된다는 말을 곰곰이 되짚게 된다.

김수정

서울시 동작구 사당동

이름난 복디자이너들의

숨새가 엿보이는 책들이 서점의 진열대위에 오름 참 많아졌습니다.

독자들의 눈은 점점 까다로워 지기만 하고

책의 가치수는 하루가 다르게 늘어만 가고...

'선택받는 책' '사랑받는 책'을 만들기 위해선 출판인들의

세심한 배려가 절실 할 때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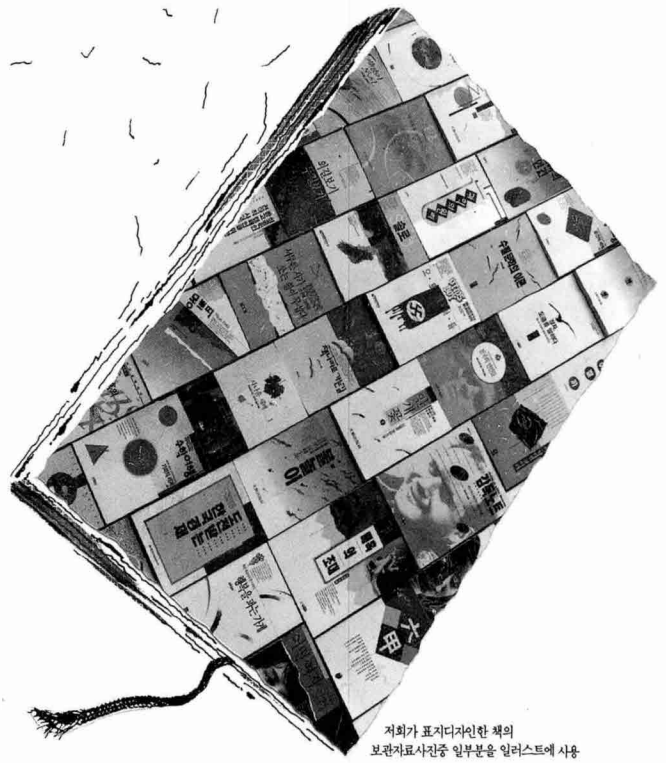
그래도 바보같은 책,

눈에 들지않는 책, 그책이 그책같은 책 얼뜨기 회장한 책들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이유는 폭주하는 물량탓인가요?

일부 출판인과 일부디자이너의 안일한 제작태도 탓인가요?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할 때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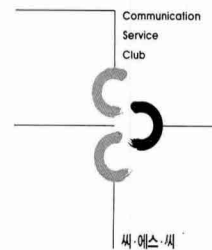
저희가 표지디자인한 책의
보관자료사진중 일부부분을 일러스트에 사용

필드에서 노하우를

축척한 전문 복디자이너들이 씨·에스·씨에서 만나

광고기획부, 프로모션/인테리어부에 이어 출판기획부를 새롭게 구성하였습니다.

항상 연구하는 자세로 보다 나은 책 인권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씨·에스·씨 출판기획부는

표지디자인·본문디자인·출판광고디자인·일러스트·기타인쇄물디자인
을 기획, 제작하고 있습니다.

씨·에스·씨 출판기획부/중로구 삼정동 127-2호 TEL: 722-6352, 723-6826 FAX: 723-6826